

오늘의 기사관

행사 (4일)
▲SK네트웍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전달식=오전 11시 광주 시 북구청장실.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오후 7시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
▲방송위원회 광주 시청차 미디어센터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연속토론회=오후 7시 광주영상예술센터 2층 세미나실.

SK네트웍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전달식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청장실

행동연대 대표가 '시청차 미디어센터의 공공적 운영을 위한 시민사회진영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로 강연.
▲광주정보통신재단 제 14회 정기연주회=4일(월) 오후 7시 광주주문예회관 대극장.
▲신수경 피아노 독주회=4일(월) 오후 7시30분 광주주문예회관 소극장.



추첨함

광주일보가 실시한 39·40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안성희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안씨는 3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뉴스퀴즈

41.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아시안게임이 지난 2일 새벽(한국시간) 화려하게 개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45개국 1만2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오는 15일까지 39개 종목에 4247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입니다. 한국은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① 도하 ② 바그다드 ③ 두바이 ④ 이스탄불

참어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본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지난주 정답>
39회 - ① 김연아, 40회 - ① 괴물

함께 풀어봅시다 < 2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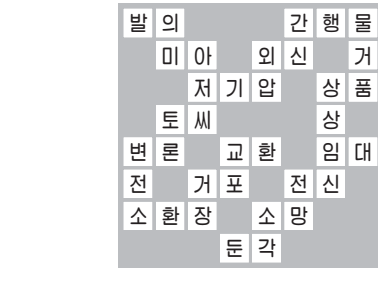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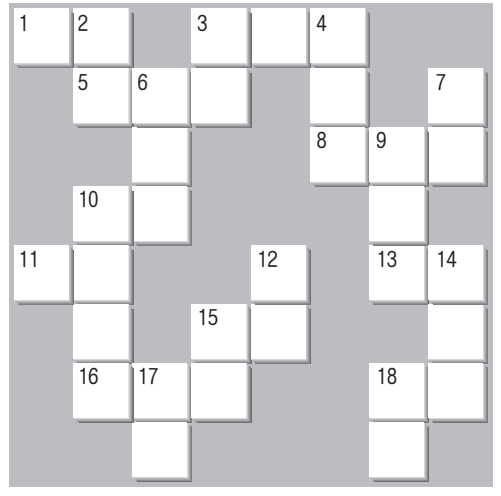
→ 가로풀이

1.주둔하였던 군대를 철수함. 3.알맞게 들어맞지 아니함. 그 음식은 중요한 모임에 내놓기에는 ~하다는 평정을 받았다. 5.의사 및 의료 시설이 없는 마을. 의대생들은 ~에 가서 그곳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다. 8.우두머리가 되어 어떤 일이나 음모 따위를 꾸미는 사람. 그는 시위 ~로 지도되었다. → 주동자. 10.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우리에겐 그 사실을 뒤집을 만한 ~이 없다. 11.전염병에 대해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 생균에 조각을 가해 독소를 약화시키거나 균을 죽게 하여 만든 주사약. 13.서적, 신문, 잡지 등에서 내용을 보충하거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는 그림. 15.한

해의 마지막 무렵. → 연초. 16.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아장아장, 엉금엉금 등이 있다. 18.한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작은 총.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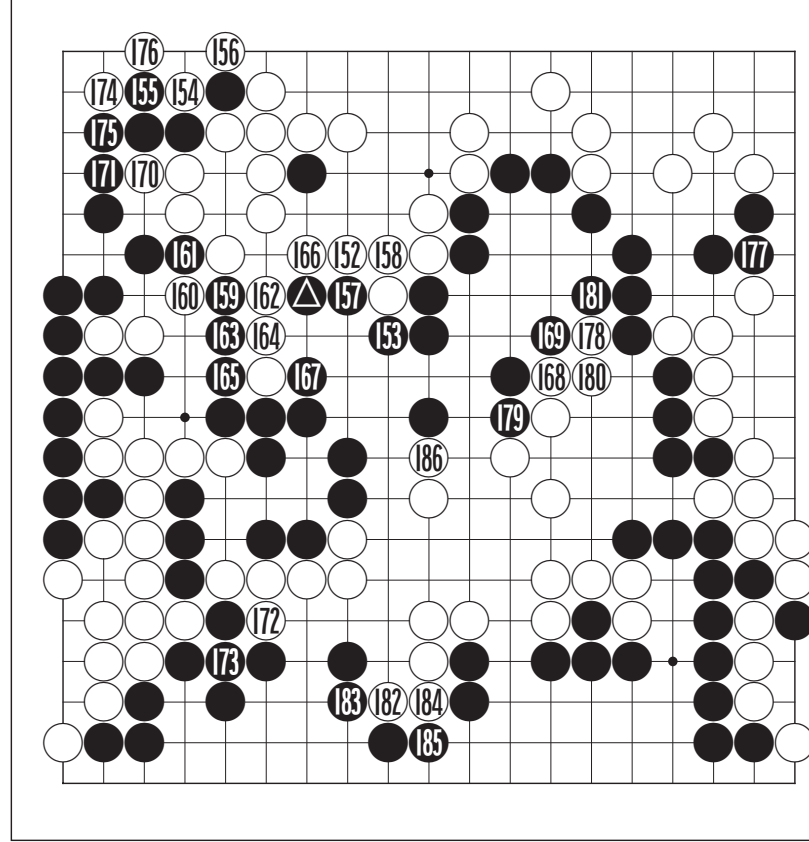
2.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춤, 또는 그 춤. 3.부자가 많이 사는 마을. 4.전통 혼례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잔을 바꾸어 마시는 술. 6.아내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성격이나 병적 증세. 7.자금을 융통함. 또는 그 자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를 받았다. 9.어린 식물을 옮겨 심을 때에 사용하는 흙손만 한 작은 삽. 10.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함. 12.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 사건의 ~이 드러나다. 14.과거에 총열에 있는 노끈에 불을 붙여 쏘던 총을 이르는 말. 15.화귀성 어종으로 70~90cm 정도 크기의 물고



<함께 풀어봅시다 229회 정답>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대통령이 ~을 남용하면 안된다.

- ▲지난주 정답자
박중우·광주시 동구 지산동 이다연·광주시 서구 풍양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본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제15회 光日盃 마지막 패착 8보(152~186)

유 5단이 전보에서의 대실수로 역전을 당하고 나서 추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다. 백이 역전했다고는 하나 남은 곳이 많아 지금도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유 5단은 흑 1로 큰 곳을 선수한 다음 153으로 중앙을 막았는데 이 수가 마지막 패착이었다. 이 수로는 좌상귀의 흑 한점을 '참고도'처럼 잇는 것이 더 컸다. 흑이 이곳을 이으면 표시된대로 9점이 난다. 백이 한



바둑소식

김승준·송태근 기성전 4강 진출

김승준 9단과 송태근 8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7기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본선 8강전을 통과, 4강전에 진출했다. 김 9단은 백흑서 5단을 192수 끝에 백 불계로, 송 8단은 최규형 9단을 145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준결승전에 올랐다. 김 9단은 송 8단과 도전자 결정전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준결승에 선착한 원상진 7단은 최철한 9단-안조영 9단의 대국 승자와 도전자 결정전 진출을 다툰다. 대회 상금 총규모는 1억5천만 원이며, 우승상금은 1천800만원(준우승 600만원)이다.

굿모닝 잉글리쉬 <789>

~ available?
~ 파는 것, 있나요?
A: Hello, may I help you find something?
B: I'm looking for a crystal decanter. Do you have any available?
A: Yes. We have a good selection. They are right over here.
A: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 드릴까요, 무얼 찾으세요?
B: 크리스탈 유리병이 필요하거든요. 판매하는 물건, 있나요?
A: 그럼요, 저희 가게는 모든 종류가 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decanter [dikæntər] n. (식탁용의 마개 있는) 유리병.
available : ① 이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② 입수(이용) 가능한 : (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는
- Is the manager available? (부장님, 시간 있으세요?)
- Do you have any smaller one available? (약간 작은 것으로, 판니까?)

오하이오 니혼고 <789>

お勘定はごいっしょでよろしいですか?
계산은 같이 해도 됩니까?
A: お勘定(かんじょう)はごいっしょでよろしいですか?
B: ええ。ああ、あの、領収書(りょうしゅうしょ)切ってもらえますか? でなければ、レシートでもかまいませんが。
A: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お名前は何?
B: 上様(うえさま)でいいです。
A: 계산은 같이 해도 됩니까?
B: 예, 아, 자- 영수증 끊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등록기 영수증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A: 예, 알겠습니다. 성함은?
B: 그냥 우에사마로 해 주세요.
勘定(かんじょう) : 지불하는 요금, 계산
ごいっしょ : 함께
領収書(りょうしゅうしょ)を切(きる) : 영수증을 발행하다
レシート : 영수, 영수증
かまいません : 상관 없습니다

니하오 풍구워 <507>

鸡蛋里挑骨头
억지로 남의 흠을 들추어내다
A: 檢驗这鸡蛋有什么产品不纯.
B: 鸡蛋里挑骨头.
C: 鸡蛋里挑骨头.
A: 你不能这么说. 咱们商量一下. 这地方有问题.
B: 我早就知道了. 别提了.
A: 别提了. 咱们商量一下. 这地方有问题.
B: 别提了. 咱们商量一下. 这地方有问题.

한자 이야기 <507>

橘化為枳 (굴화위지)
굴 굴, 화화 화, 뭇 위, 탕자 지
굴화위지(橘化為枳)는 '굴이 변하여 탕자가 된다'는 말이다. 양자강 남쪽의 굴을 양자강 북쪽으로 옮겨 심으면 탕자로 변한다는 뜻으로, 사람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유로 사용한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안자(晏子)는 중국 역사상 드물게 보는 명 재상(宰相)이었다. 굴화위지란 말은 안자가 경공의 명을 받들어 남방(南方) 초(楚)나라에 사신 갔을 때 초왕과의 문답 가운데 보이는 말이다. 초왕은 안자를 곤란하게 하려고 측근과 짜고 사람을 포박하여 일부러 지나가게 하였다. 초왕이 웅얼이냐고 물으니, "제나라 사람으로 교묘하게 도둑질하는 자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초왕이 특이양양하여 "제나라는 예의바른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런 도둑이 있습니까?"하고 조롱하자, 안자는 "강남의 굴을 강북에 이식(利殖)하면 탕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토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제나라에 있을 때는 예의바르게 정장(正裝)하고 조정에 출저어 서서 백의의 청렴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국(貴國) 초나라에 살면서 도둑의 오명을 받게 된 것은, 귀국의 토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고 말하여 초왕의 조롱을 모면하였다고 한다.